

한일합섬 마산 공장부지 개발 논쟁

채권단은 조기매각 요구 ... 아파트 개발사업은 시민단체 반발 예상

한일합섬의 경남 마산 공장부지가 매각될지 혹은 자체 개발될지 여부가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일합섬은 2006년께 마산 공장을 경상남도 내 3-4곳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하반기 중 양덕동 공장 터 29만6000여평방미터(m²)에 대한 매각 및 개발 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5월19일 밝혔다.

채권단은 조기 매각을 요구하는 반면 한일합섬 측은 자체 개발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합섬은 공장 부지에 60m² 이하 648가구, 60-85m² 1616가구, 85m² 초과 876가구 등 314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마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을 신청했으나 교통혼잡 등의 이유로 시민단체들이 반발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화학저널 2004/05/20>